

# 취향 따라 떠나는 테마별 섬 여행, 찾아가고 싶은 섬

‘찾아가고 싶은 섬’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5년부터 섬 지역의 관광,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선정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. 행정안전부와 한국섬진흥원은 2022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봄(9곳)과 여름(15곳), 가을(9곳) 등 총 33곳의 섬을 선정했는데요. 아름다운 33곳의 섬이 계절별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봅시다.



가벼운 옷차림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봄 기운이 만연한 섬으로 떠나볼까요? 아름답게 물든 봄의 색상을 만나는 섬, 귀여운 동물 조형물이 있는 섬, 가족단위 힐링 공간이 있는 섬 등 봄 테마에 맞는 ‘2022년 찾아가고 싶은 섬- 봄섬’ 아홉 곳을 소개합니다.

‘찰칵섬’은 화려한 봄꽃과 마을풍경, 노을, 해안절경 등 각 섬별로 뚜렷한 컬러를 보유해 사진 찍기 좋은 섬인데요. 노란색의 **선도**(전남 신안), 초록색의 **청산도**(전남 완도), 노을이 아름다운 **주항색 장고도**(충남 보령) 등 3개 섬입니다.

장고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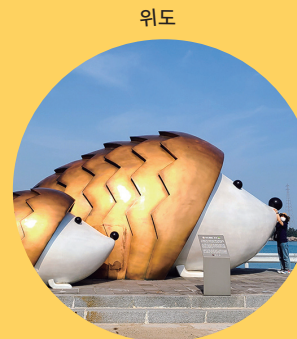
선도



청산도



‘동물섬’은 섬 곳곳에 설치된 동물 조형물 등 스토리가 담긴 곳으로, 고슴도치섬인 **위도**(전북 부안), 사슴섬인 **이수도**(경남 거제), 고양이섬 **애도**(전남 고흥)가 이름을 올렸습니다.



위도



이수도



애도(쑤섬)



특별한 날에는 대형 전광판에 메시지를 게재해보는 건 어떨까요? 해수욕장과 가까운 캠핑장에서 몽돌이 부딪치는 소리를 들으며 봄의 정취를 느낄 수도 있는데요. **낭도**(전남 여수), **신수도**(경남 사천), **생일도**(전남 완도)를 ‘가족섬’으로 소개합니다.



낭도



신수도



생일도

